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의 정립(1)

목 차

1. 서론
2. 환경이란?
3. 환경과 자연
4. 환경과 생태계
5. 환경과 인간사회
6. 성장의 강박감
7.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8. 환경패러다임의 전환
9. "Agend 21" 실천의 단계
10. 차세대에너지의 개발
11. 에덴의 회복
12. 결론



崔瑞國

前, 국제열관리연구소장
現, E&E 컨설턴트 대표

1. 서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환경”이란 낱말은 그다지 볼 수 없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는 날이 곧 조국분단의 시작이었고 뒤이어 발발한 6.25 전란으로 온 국토가 폐허화되어 국민들 모두가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웠던 그 시절, 환경오염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서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오로지 생산력 증대에 일로매진했던 왕성한 성장드라이브, 고생스러웠지만 향수가 느껴지기도 하는 그 당시는 ‘공해는 필요악’이라고 까지 했다. 한강의 기적의 이면에는 이같은

필요악이 뒤따랐던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이 집중투자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구조적으로 조심되었으며 나아가 산업화와 도시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공업국의 경우는 자연과학과 공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富)와 군사력을 키워 지구 곳곳을 뒤흔들면서 식민지 침략과 자원의 수탈을 강행했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말까지 인류(주로 선진공업국들)가 소비한 화석연료는 과거 수십만년동안 사용한 양보다 더 많다. 또 원시림을 마구 벌채했으며, 구리, 철, 아연, 주석, 금, 은 등의 지하자원을 지구 곳곳에서 파냈다. 지상과 지하에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거미줄 같이 깔렸고, 해상, 수중, 항공등의 교통수단이 극도로 발달해 달나라에도 왕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같은 찬란한 물질문명은 주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기아와 질병의 퇴치에 기여한 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반면에 흑심한 환경오염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기, 수질, 토양 등 생물 생존의 기반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의 이

변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논과 산에서 울던 뚝부기와 뚝부기 소리가 사라졌고 강남 갔던 제비들은 봄이 와도 옛집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생태계의 이런 이변은 곧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 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에 반하는 CO₂의 배출량 증대는 마침내 지구의 기후까지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때 많은 인간(Homo Sapiens)의 괴력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CO₂등의 과다 배출에 의한 기후온난화로 지구도처에서 가뭄과 홍수가 가속되고 산림과 초지 그리고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다. 많은 생물종들이 멸실되고 기형체가 생기기도 한다. 이같은 생태계의 이변은 인간 자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셈이 된다.

이상은 자연환경에 대해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 때문에 초래되고 있는 재해에 관한 것 들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우선 먹을 것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옷과 집을 만들면서 살아 왔다. 그러므로 자연을 제1의적으로 중요시하고 환경문제라 하면 자연환경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서로 서로 협조하기도 싸우기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한다. 이러한 관계는 옛날에도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나 공자의 ‘폭정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인구가 60억명이나 되고 독립국가만 해도 200개 이상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서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사회공동체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환경을 논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새천년 국

가환경비전 선언’이 김대중대통령의 연설로 발표되었다.¹⁾ 이 선언중에 ‘환경오염이 심화된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으며, 이제 그 “잘못된 정책 패러다임”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있다. 그 개혁 대책으로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첫째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의 시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만한 내용은 별로 발견할 수 없다. 환경개선의 “객체”는 여전히 자연환경일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내지 정복하는 “주체”라는 사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인간은 환경개선의 주체인 동시에 인간사회 또한 환경개선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유의 억압과 배고픔을 참다못해 중국 만주로 탈출한 남녀노소들을 북한 보안대원들이 체포하여 쇠사슬로 손과 코를 꿰어 트럭에 실어가는²⁾ 사회, 그런 사회환경속에서 어찌 인간으로서의 삶의 최소한의 조건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회 환경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환경인들의 책임과 힘의 한계는 어떤가?

본 稿에서 필자는 감히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정답을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여 관심을 끌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답을 찾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한가지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한 과제로서 ‘차세대에너지의 연구개발’을 동시에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개도국으로써 세계화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의 연구개발에 힘쓸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에는 이에 정비례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환경오염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연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1차에너지 소비량의 97%이상을 수

1) 환경부 「환경백서 2000」 권두에 전문 게재되어 있음.

2)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미국인의 증언이 2002. 4. 23일자 여러 일간지에 보도되었음.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의 에너지 매장량은 금세기 중반쯤에는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 문제는 이미 10년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genda 21"과 직결되는 것이다.

Agenda 21은 이제 준비기간을 지나 실천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 엄청난 에너지원(원자력포함)을 새로운 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지구인들의 공동책임이며 지극히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따라가기만 하다가는 개도국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환경파괴 세계 최악 수준에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월 2일 발표한 '환경지속지수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142개국중 최하위권인 138위로 되어 있다³⁾. 우리의 환경수준이 이렇게 낮다는데 놀라는 동시에 WEF의 평가기준에는 정부의 부패도(腐敗度)가 들어 있는데 주목하게 된다.

2. 환경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환경"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환경은 정복의 대상인가 순응해야 할 대상인가? 사람들은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환경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단언과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은 점점 심해져, 이제 인간 자신을 포함한 생태계가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환경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2-1 환경의 사전적 해석

우선 여러 사전(辭典)에 실려 있는 환경이란 낱말의 풀이를 찾아보기로 한다.

(1) 한글학회「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

환 경 : 생물, 무생물에 두루 영향을 끼치는 멀고 가까운 자연 및 사회적인 일이나 상태.

(2) 양주동 「국어대사전」선일문화사

환 경 : ①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circumstance. ② 생활체를 둘러 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등에서는 자연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을 일컫음. environment.

(3) 그린기획편집「21세기세계대백과사전」범한 1999.

환경과 생태분포⁴⁾

환 경 :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는 온도, 습도, 적당한 주거지와 먹이등이 갖춰져 있는 주위 및 상태를 말하며 지구상의 위치와 계절, 크기는 시기(지리학적 期 또는 紀)에 따라 달라진다.

① 북극환경 : 지구 북반구의 산림한계 이북의 고위도 지방을 "한대"라 한다. 겨울은 일조시간이 짧고 온도가 낮아 극도의 추위가 닥치게 된다. 여름은 거의 하루종일 햇빛이 난다. 그러나 기온은 0℃ 정도로 낮다. 다만 이끼가 자라는 곳은 10~15℃가 되므로 생장이 가능하다. 북극은 강설량이 적고 건조하며 강풍이 계속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동·식물들이 서식한다.

② 남극환경 : 남극은 고립된 대륙으로서 평균고도가 1530m이며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남극의 중앙부는 기온이 -88° 까지 내려간다. 남극에는 육지의 4%만이 여름에 녹아서 거기에 박테리아, 균, 현미경적인 미소동물이

3) 2002. 2. 4일자 여러 일간지에 보도

4) 21세기 세계대백과사전-10(생물·인체편)의 "환경과 생태분포"六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語 필자가 취합 간략화한 것임

증식하고 이기도 생장한다. 바닷물은 여름에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난류에 의하여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③ 침엽수림대의 환경 : 유라시아에서 북아메리카에 걸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을 침엽수림대가 약 1500km의 너비로 에워싸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달은 2~4개월이고 겨울의 평균기온은 -30~40℃에 이른다.

④ 온대림지역의 환경 : 열대와 한대사이에 있는 연평균기온이 0~20℃인 지역을 "온대"라 한다. 옛날에는 유럽, 중국, 북아메리카의 동부, 남아메리카의 칠레, 아르헨티나의 광범위한 지역에 낙엽수림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인류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이 벌채되었다. 이에 따라 동·식물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북반구에 현존하는 온대림은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이다.

⑤ 열대다우림지역의 환경 : 일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지방에는 상록수인 열대다우림이 펼쳐져 있다. 동남아시아, 뉴기니아, 중앙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북부 등 대부분이 적도에서 남북으로 약 30도 부근까지인 지역으로써 연간 강수량이 2000mm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 열대다우림지역은 동물들에게 많은 먹이를 주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번식하고 있다.

⑥ 초원환경 : 습도가 높은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으로 환경이 옮겨감에 따라 삼림에서 사막으로 생물군계가 변화하며 그 중간에 초원이 나타난다. 초원은 기후대의 차이에 따라 온대초원과 열대초원으로 나뉜다. 초원은 헝가리와 남러시아를 지나 중국까지 320km 이상에 걸쳐 펼쳐지는데 북쪽은 낙엽수림 또는 침엽수림에 접하고 남쪽은 흑해, 카스피해,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초원에는 대형, 소형의 초식동물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어서 독특한 생물군집을 이루고 있다.

⑦ 사막환경 : 연간강수량이 250mm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고온지역에 사막이 생긴다. 지구상에는 12개의 주요사막이 있는데 그 총 면적은 지구 육지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막은 2개의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북반구에, 또 하나는 남반구에, 적도에서 15~40도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사막에서는 여름에 기온이 49℃나 되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지표의 온도는 이보다 17~18℃나 더 높다.

⑧ 산악환경 : 지구상에서 1000m를 넘는 고지는 대략 육지의 1/4를 차지한다. 산에서는 식물의 경관이 수직적으로 달라지는데 밑에서부터 차례로 저지대, 아고산대, 고산대로 구분된다. 고산지대란 산림한계선 위의 고지로서 만년설로 덮여 있는 항설대의 하한선까지를 말한다. 기온은 일반적으로 표고 100m 상승할 때마다 0.6℃ 씩 낮아진다. 또 공기가 희박해지고 기압도 낮아진다.

⑨ 호소와 하천의 환경 : 지구상의 수권중에서 호소와 하천은 해양의 약 1/56,000밖에 안된다. 이들 육수는 바닷물처럼 짠맛이 없으며 그래서 담수라 한다. 인간을 비롯한 육상의 동물들은 이 담수를 마시고 산다. 하천은 산이나 높은 곳에서부터 유수가 모여 들어 바다에 이르는 동안 생활수나 축산폐수, 공장폐수들에 의해 오염되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물은 거의 대부분 이 하천이나 호소의 담수이다.

⑩ 해양환경 : 해양은 지구표면의 3/4를 차지하는 수권으로 해양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환경속에서 동물종들은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온 것이다.

(4) 북한의 「조선말대사전」평양종합인쇄공장 1992. 3. 20.

환 경 : ①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 || 가정~, 사회~ ②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상태. || ~이 깨끗하다. ~을 파괴하지 않다. ③ 어떤 개체, '유전자형, 유전자가 형질을 나타낼 때 호상작용하는 요인'을 통털어 이르는 말.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내는데는 유전자무리에 의

한 요인과 비유전적인 외부환경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환경기준 :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법적으로 제정한 대기와 수역의 섞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지표. 대기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넘는 곳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5) 박창근편저「환경용어정보대사전」진한도서 2001.

환 경(environment) : 생물이 살고 있는 바깥주위를 가리키는 말로 물, 햇빛 등, 그리고 다른 생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되어 진다. 환경은 생물의 성장, 발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함.

(6)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한국어판)」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1998

환 경(environment) : 생물체와 생태군집에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형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물리적, 화학적 요인들의 복합체→생물권, 생태계, 자연보존,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결정론(environmentalism) : 문화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관해 노하는 사회과학론. 환경결정론은 천연자원, 기후, 지형등을 포함해 인간의 물리적 주변환경을 문화형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 기타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사회안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정한다.

이러한 환경결정론에 반해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은 환경이란 인간의 선택가능성을 창출하는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는다. 극한적인 형태의 경우 환경가능론은 선택의 형태에 환경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조차 거부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환경결정론에서도 물리적 환경이 사회

적, 경제적 요인, 문화적 전통을 포함하는 전제환경 가운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과 사회와 환경간에 상호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2 법으로 규정한 환경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및 각종 분야별 환경관련법령들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두 이 헌법 정신에 바탕하여 제정되어 왔다.

(1)헌법상의 보장

제35조(환경권등)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예방등)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36조(국민보전등) ③ 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환경법상의 환경 및 용어의 정의

환경정책기본법⁵⁾ 제3조에서는 환경 및 환경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②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④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④의 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형법상의 환경

범죄는 환경에 따라 규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소질과 환경의 복잡다기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므로 범죄와 환경과의 관련성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형법상 의의가 있는 환경으로는 일반적환경과 개인적 환경, 그리고 범인성(犯因性)인격환경과 범인성 행위환경이 있다.

- ① 일반적환경 : 자연적 사상(事象), 국가, 지역, 문화경제 등
- ② 개인적환경 : 가정, 학교, 직업, 배우(配偶), 교우 등

- ③ 범인성인격환경 : 가정, 학교, 거주지, 문화, 중독증 등
- ④ 범인성행위환경 : 명정(醜惡), 군중, 전쟁, 경제, 자연 조건 등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들.

(4) 환경권

환경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헌법제35조 제2항에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권의 대상이 되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기, 물, 일광 등은 물론이고, 도로·교량·공원 등 인공적 환경과 역사적 유산 및 사회관습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은 만일 국가권력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청원권의 행사, 행정소송·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침해구제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사법(私法)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헌법제37조 제2항)

2-3 종교·철학의 환경관

(1) 강영선의「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6.

환 경 :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위(外圍). 환경은 생활체의 내부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넓은 뜻으로는 이들의 전부를 의미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환경을 가리키고 생활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심리적인 여러 가지 특질이 유전에 의하는가 환경에 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될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들의 상호 교섭과 더 고차적인 개념으로 생각되는 장(場)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이론 : 환경에 의하여 인간생활을 설명하는 이론. 자연적 환경에 중점을 두는 것과 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는 것

5) 1990. 8. 1. 제정. 1999. 12. 31. 제6차 개정. ④-2는 신설된 것임. 이 법이 제정되므로써 1997. 12. 31.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폐지되었음

이 있다. 19세기에는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사상과 관련하여 환경이론이 다시 제기되어 사회제도를 포함하여 인간의 여러문화가 생물의 환경적응에 쫓아서 해석되고, 환경의 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의 유형이 생각되었다. 한편 사회적인 환경이론도 환경을 인간생활을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인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교육적 환경학 등이 제창되고 있다.

(2) 황세연의「철학사전」 청사 1998

환 경 : 현재의 환경문제 가운데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간대 환경의 문제에 관한 철학적인 파악은 의식이 사물 또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를 위시하여, 형이상학에서는 유심론 대 유물론, 혹은 인식론의 경우에는 선형적 관념론 대 소박 실재론의 논의로 시작된다. 인간을 세계속에 있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실존 철학이나, 자연이나 사회의 존재방식이 인간의 사상의 존재방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현대의 유물론은 이와 동일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는 문제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문화 그 자체의 존재방식과 자연환경의 관계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진보된 분석을 통하여 문제로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접근을 요구 하고 있다.

(3) 종교와 환경

종교의 경전이나 신학 서적에서 환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전의 문항이나 교의의 해설등에서 간접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인식과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4) 기독교의 창세기6)

기독교의 구약성서 창세기 제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무생물, 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자식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 다니는 짐승을 부려라”라고 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 옛부터 동양사상은 인간과 자연(생태계포함)을 하나의 합일체로 보아왔고 서양에선 인간이 자연 즉 환경을 정복의 대상으로 하였다. 동양에서는 짓가락과 수팔을 쓰고 서양사람들은 나이프와 포크를 쓴다. 이는 동양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하고 서양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이 이 창세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불교와 환경

운 회 : 불교에서는 중생이 수업성도하여 해탈할때까지 업(業)에 의하여 삶과 죽음을 되풀이 하는데 현세에서 좋은 일 즉 업을 하면 내세에 성불하여 다시 태어나고 나쁜일을 하면 짐승같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세의 존재는 전세의 업의 결과인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⁸⁾ : 여기서 색(色)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물질적 존재”를 가르키는 것이며, 공(空)이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만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4차원적 개념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사상은 오늘날의 과학적 실증에 의한 “소립자론”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나 모든 자연적 존재는 다 같이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불살생계 : 살생(殺生)하지 말라 라는 것은 불교의 오계(五戒)중 첫째로 되어 있는계율이다. 기독교의 계율인 모세의 10계명⁹⁾에는 제6조에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라”라

6) 성서(카톨릭용) 대한성서공회 발간 1986.

7) 창세기 제1장 제28절.

8) 般若心經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이란 구절이 있다.

9) 구약성서 출애굽기 제20장 2~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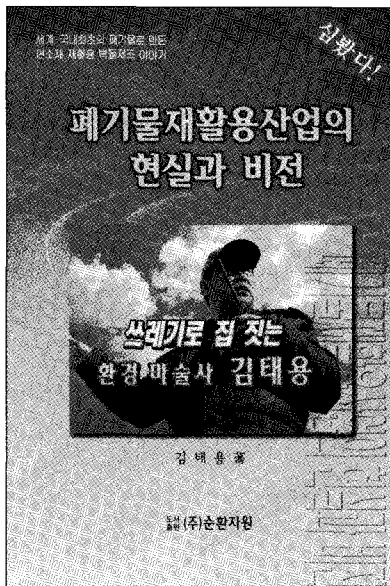
고 되어 있다. 즉 인간이외의 동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된다.

환경관 : 여기서 불교의 인간 대 자연(생태계포함)의 관계에서 보는 "환경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불교의 환경관은 요즘 말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보다 한 거름 더 나아가 모든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목숨과 같이 중히 여기는 다시 말해 인간중심이 아니라 인간을 만유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신간안내



세계 · 국내최초의 폐기물로 만든 연소재 재활용 벽돌제조 이야기
「폐기물재활용산업의 현실과 비전」

*주요내용

- 운명적인 폐기물재활용사업
- 폐기물은 자원이다
- 전진산업의 폐기물재활용사업
- 통계자료로 본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현황
- 21세기에 있어서의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방향
-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언

*저자인: 김태용 씨

- 미국 비전인터내셔널대 명예 경영학 박사
- 현 전진산업(합) 회장

*펴낸 곳: 도서출판 (주)순원자원

*정가: 12,000원